

5 2024 VOL. 335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STARGAZER Essential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선수금 최저 | 월 납입금 최저 | Essential 트림 판매가  
**24** Juta\* | **2.4** Juta\* | **261.4~** Juta\*  
(On the Road 자카르타, MT 모델 기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블랙 대시보드 디자인 및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엔진 스타트 버튼



4.2인치 TFT LCD 클러스터  
(타이어 공기압 정보 시스템 포함)



2열 캡틴 시트

##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사고시 신차 교환\*

(1년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차량가격의 50% 이상 발생 시)



잔존가치 70% 보장\*

(구매 후 3년내 판매 시)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http://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 월간 한인뉴스 5 2024

###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쓰담쓰담 그린 런' 행사에서  
바람개비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의 모습  
2023. 9. 24.  
이창균 (야구협회회장)

##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최초'  
역사를 쓰는 한국인

## 8

[김재훈의 '세무 TALK']  
법인세 연장 신청

## 10

'팀코리아' 결성

## 11

제22대 총선 재외 투표율 62.8%

## 12

월간 뉴스 브리핑  
<테일리 인도네시아>



# contents

2024. 5. 통권 335호

16

[여기가 맛집]  
Pulau Sentosa Seafood  
Market <황지영>

19

[디카시 풍경]  
봄은 <김주명>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8]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4

무협 부산기업협의회,  
한인회와 간담회 가져

25

JIKS 소식

26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 리더 1  
PT Dreamcon Lens  
Indonesia 김진경 이사

36

[서상영의 한방칼럼 13]  
다이어트 4

38

[행복에세이]  
행복은 어디에 깃드는가!  
<강인수>

40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그 모든 게 사랑이었네  
<김별님>

43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 협의  
의사록 서명

45

[칼럼] 동남아시아 화인,  
보이지 않는 영토 그러나  
상상되는 네트워크  
<조연숙>

48

[반려식물 랜선집사]  
스칼렛 미용실을 점령한 푸른  
생명체 <전무연>

5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5 <신성철>

5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3)  
인도네시아 헌법(5) <이승민>

56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 <사공경>

61

인도네시아 태권도 국가대표팀  
한국인 감독 영입

62

2024 시사상식

68

생활정보

##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최초’ 역사를 쓰는 한국인



논설위원 신성철

일본 자동차기업이 독점하다시피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 든 현대자동차가 2022년 3월 인도네시아 최초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현지 생산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앞세워 최대 전기차 판매기록(2023년 1~7월)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산유국이면서도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빠르따미나(Pertamina)로부터 우리나라가 현지에서 최초로 총사업비 6조원 규모의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단일 플랜트사업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같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는 최초와 1호가 많다. 오늘날 같이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이룩한 데는 선배들의 피와 땀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해준 의미있는 나라라는 것은 다음 사례를 통해 증명된다.

‘제1호 한국 ‘해외투자사업’은 1968년 코데코(Kodeco, 한국남방개발)의 원목개발사업이다. ‘한국 최초의 제조업 해외투자는 1973년 대상(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이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도로는 자카르타~보고르를 잇는 자고라위 고속도로(Jagorawi Toll Road, 연장 59km)로 현대건설이 1973년 수주해 1978년에 완공했으며 지금도 현지에서 훌륭한 토목공사로 꼽힌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게 한 나라도 인도네시아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1970년대 두차례 석유과동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릴 때, 1981년 코데코와 빠르따미나와의 서마두라유전 공동개발은 ‘한국 최초 해외유전개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1992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소를 개소한 국가로, 한국 해외원조의 첫 사례이다.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개발한 프로펠러형 훈련기 KT-1을 최초 수입한 국가이며, 제트 훈련기 T-50을 가장 먼저 사준 나라이다. 또 우리가 생산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구매한 국가(2011년 3척 구매계약 체결)이며, KF-21 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최초의 국가가 인도네시아이다.

냉전시대인 1973년에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남북한이 대사관을 동시에 상주시킨 첫번째 국가이다.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았다. 그리고 60%가 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을 자국 발전 모델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가장 신뢰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동력은 무엇보다도 경제와 비즈니스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목재산업으로 시작해 경공업인 섬유·봉제와 전자산업 등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제철과 석유화학은 물론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신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돼 양국의 협력관계는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1차, 2차, 3차 및 4차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진행하면서,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현재 세계 16위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의류와 섬유, 신발, 목재,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강점이 있지만 생산 방식은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강국의 꿈을 이루려면 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뛰어넘어 4차산업 기술로 직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오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교 반세기를 맞았다. 양국은 외교와 국방, 경제와 비즈니스 및 사회문화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끝)



# "법인세 연장 신청" PMK 243/201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마감 기한인데, 이때까지 신고를 못할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까지 가능하다

즉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신고 기한이지만 최대 2개월을 연장하여 6월말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3조 4항에는 “납세자는 연간 세금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해 규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 규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 규정 PMK No.243/PMK.03/2014 호 제13절에서 16절까지 연간 신고서 기한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 1) 과세년도 임시 세금 계산 내역
- 2) 임시 재무제표
- 3) 과소납부한 경우 SSP 또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납부서(SSP)

연장신청서에는 납세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서명 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상기 연장 신청서를 4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1) 직접 전달
- 2) 우편 발송
- 3) 택배서비스 등
- 4) e-PSPT

e-PSP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지연 납부 이자는 부과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OSS 상 NIB 가 일시 차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신고때까지 수출입 통관이나 NIB를 통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끝)



## [신간안내]

한인뉴스에서 세무 칼럼을 쓰고 있는 김재훈 대표(우리아토즈 인도네시아 컨설팅)의 『해외 창업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이 출간됐다. 이 두 권의 책은 세계의 신흥 시장경제국가로 자리매김한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계획하거나 인도네시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동남아 남부 협의회

### 대회일시

2024년 5월 25일 (토) 오전 09:30

### 대회장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JKS) 대강당

### 참가대상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중 고등학생  
 (9학년~12학년) 선착순 100명

### 문의 사항

[puacindonesia@gmail.com](mailto:puacindonesia@gmail.com)

### 대회 참가신청

- 신청방법 : 구글 Form 등록 (QR Code)  
[bit.ly/goldenbell2024](https://bit.ly/goldenbell2024)



- 접수기간 : 2024년 4월 10일~5월 10일

### 시상내역

- 대상(1명) : 상장 및 장학금 500만 루피아, 모국방문 한류체험 및 전세계 통일 골든벨 참가자격 및 참가비 일부 (2024년 7월중 개최 예정)
- 최우수상(2명) : 상장 및 장학금 300만 루피아
- 우수상(3명) : 상장 및 장학금 200만 루피아
- 장려상(3명) : 상장 및 장학금 100만 루피아
- 참가상(전원) : 통일 골든벨 수료증 및 기념품

주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후원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donesia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KOCHAM

# 인니 진출 韓기업들 “당국에 한 목소리 내자” '팀 코리아' 결성

재인니상의 중심으로 플랫폼 결성...정보 공유·규제당국 공동 대응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를 중심으로 '팀 코리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18일 코참과 인도네시아 주재 5개 공공기관(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과 '재인도네시아 한국 기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팀코리아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 현지 경제 동향과 각종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나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우리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보다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에서는 그만큼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 의견이 반영되려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오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과 동포 기업, 공공기관, 정부가 힘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 권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강현 코참 회장도 “인도네시아가 세계적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 요구사항이 갈수록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같다”며 “결국 우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장도 “협력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비롯해 포스코와 LG전자, SK, LX, 대한항공 등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제공: 연합뉴스)

#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9만2,923명 참여 투표율 62.8%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발리분관에서 시행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확정명부 2,633명 가운데 1,883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 71.51%를 기록

## 역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중 최고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해 투표율 62.8%를 기록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45.7%), 20대 총선(41.4%), 21대 총선(23.8%) 등 역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중 최고치다. 재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이번 재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외교행낭의 재외투표수(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4월 10일(수)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했다.

(제공: 재외동포신문)

### <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

구 분	제22대 국선 (24. 4. 10.)	제20대 대선 (22. 3. 9.)	제21대 국선* (20. 4. 15.)	제19대 대선 (17. 5. 9.)	제20대 국선 (16. 4. 13.)	제18대 대선 (12. 12. 19.)	제19대 국선 (12. 4. 11.)
선거인수	147,989명	226,162명	171,959명	294,633명	154,217명	222,389명	123,571명
투표자수	92,923명	161,878명	40,858명	221,981명	63,797명	158,225명	56,456명
투표율	62.8%	71.6%	23.8%	75.3%	41.4%	71.1%	45.7%

\*2020년 제21대 국선에서 59개 국가(91개 공관)에서 코로나19 인하여 재외선거사무 중지

### 생애 첫투표자의 소감은?



투표라는 새로운 경험이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박정석-2005. 8월생, SPH G12)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권예안-2005. 1월생, SLI G12)



해외에서도 권리를 행사하는 재외국민 투표가 신기합니다.  
(이세림-2005.4월생, JIKS 12학년)

<경제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앞세워 세계 시장 도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아서 할랄 경제의 잠재력도 큰 나라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수출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 시행될 새 규정이 이를 더욱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난 4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웹사이트 자료(2023.12.19)에 따르면 2023년 1~10월 기간에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수출액은 656조 루피아(미화 412억 달러)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내세워 자국의 할랄경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

###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업 수 1,010개, 수출액 7억7,080만 달러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업 수가 2022년에 913개에서 2023년에 1,010개로 증가했다.

경제조정부 웹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향수, 에센셜 오일 및 기타 화장품에 대한 누적 수출액은 7억7,080만 달러였고, 주요 수출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최신 인도네시아 할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22년에 41억9천만 달러였고, 성장률은 8%로 전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

세계 이슬람 경제 현황(SGIE)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할랄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무슬림이 2022년에 화장품에 지출한 금액은 840억 달러였고, 2027년에는 1,2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할랄제품으로 해외시장 노크하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회사들

인도네시아 화장품 브랜드 ‘매드 포 메이크업’ (Mad for Makeup)의 창업자인 셸리 메셀라 오슬란은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획득이 화장품 제조사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셸리는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화장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요구 규정이 국내 할랄 산업, 특히 할랄 화장품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할랄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을 도입했다. 2021년 정부령 제39호(GR39/2021)는 인도네시아로 수입·유통·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요구한다. 정부령은 제품 유형별로 계도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식품과 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셸리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할랄 여부에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셸리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피부색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을 고려해서, ‘메드 포 메이크업’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미디어 뎀뽀에 따르면 또 다른 인도네시아 화장품 브랜드 아자린(Azarine)도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63.5%나 되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다. 아자린은 올해 232억5천만 루피아(147만 달러) 어치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계획이다.

셸리는 일부 인도네시아 브랜드만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브랜

드들은 내수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할랄인증 요구에 대해, 설리는 무슬림 소비자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을 거부하는 비무슬림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브랜드 듀잇(Dew It)의 소유자인 레이첼 나타니는 화학물질이 덜 포함된 화장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시장이 많다고 말했다.

듀잇은 현재 자외선 차단제를 호주로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레이첼은 사용자들의 입소문과 발리 매장에서 듀잇 제품을 사용해본 호주 소비자들의 반응 덕분에 호주 진출을 논의하게 됐으며, 듀잇의 다음 목표는 호주 시장 개척이라고 말했다.

레이첼은 또한 인도에서도 할랄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할랄을 깨끗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리는 할랄 라벨만으로 인도네시아 브랜드의 침투력을 넓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커뮤니

티 활성화를 통해 키워서 입소문을 타고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샤리아 경제 전문가인 무하맛 샤끼르 술라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하맛은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화장품을 만들 자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단순한 수입자가 되지 않도록 국내 업체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 할랄 경제가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하맛은 인도네시아 생산자들이 화장품과 패션 분야에서 진출 가능한 수출 시장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할랄 제품 수출이 시작됐지만 인도네시아 생산자들은 자본과 마케팅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하맛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해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샤리아은행이 할랄산업 확장을 위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고속철 수라바야 연장 위해 중국 지원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일명 ‘우스’, Whoosh)를 수라바야까지 연장하기 위해 중국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고위급 대화 협력 메카니즘(HDCM) 제4차 회의가 지난 19일 동부누사똥가라(NTT)주 라부안 바조 지역에서 열렸다.

루훗 빠자이판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의 회담에서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철도기술협력단(CREC) 등 기관을 통해 ‘우스’ 프로젝트의 기술 이전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수라바야 연장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총 연장 142km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총 73억 달러가 투자돼 지난해 10월부터 운행되고 있다.

루훗 장관은 우시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이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왕이 부장과 만나, 우스의 수라바야 연장 논의가 2023년부터 진행 중이라며 왕이 총리에게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줄 것을 다시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과 수입 등 무역 부문에서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루훗은 이어 북부칼리만탄에 계획된 중국 석유화학공장 건설 등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도 중국 투자를 유치하길 바랐다.

한편 국가검역청(Barantin)의 사향 빵가베안 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농산물 수출을 개선하기 위한 검역 항구 개발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 사면의 두 항구를 자카르타 서쪽에 위치한 반뜰주 땅그랑군 뻘다이 인다 까뻍(PIK-2) 개발 프로젝트에 개발될 항구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왕이 부장은 일대일로와 인도네시아 개발 전략 간 시너지 효과를 심화시킬 의향이 있다며, 우시가 “일대일로 협력의 빛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경제와 녹색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루훗 장관은 프라보워 당선자를 조코위 대통령의 후계자라 칭하며, 조코위 대통령 정책이 이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자와 왕이 총리는 지난 4월 18일 비공개 회담을 했다. 이에 앞서 프라보워 당선자는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다.

## 대어급 중국 섬유회사, 인도네시아에 투자 추진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중국 대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셉띠안 하리오 차관은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유니클로 등 스포츠화 및 의류 브랜드에 납품하는 중국 섬유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루훗 뻘자히탄 해양투자조정부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희망하는 이 중국 대기업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중국의 아이폰 제조사가 폭스콘이라면, 이 중국 회사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라마단 기간에 중국 현지 공장을 둘러본 셉띠안 차관은 이어 잠재적인 투자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 남동부 닝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회장을 만났다면, 서부자바에 건설될 섬유 공장의 투자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르고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관은 이어 이 중국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와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Comtrade 자료에 따르면 HS(Harmonized System) 61 및 62의 인도네시아 섬유, 의류 및 액세서리 수출은 2022년 96억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5억 8,600만 달러 규모이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에 한국은 125개 프로젝트에 총 2,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최대 외국 인직접투자자였다. 이어 대만은 27개 프로젝트에 총 1,4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으며 인도는 1,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가죽 제품 및 신발 산업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5억 7,43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했다.

470만 명을 고용한 인도네시아 신발업종은 2022년에 77억 4천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10억 달러를 조금 넘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2023년에 인도네시아의 신발 수출은 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 레임덕 모르는 조코위 지지율 77.2%... 최고치 경신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는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인 레임덕(Lame duck)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4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포르 폴리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 이하 인디카포르)는 조코위 대통령 직무평가 지지율이 지난 2월에 76%에서 4월 초에 77.2%로 소폭 상승했다고 지난 4월 22일 발표했다.

인디카פור는 4월 4일부터 이틀동안 응답자 1,201명에게 전화인터뷰를 실시했다.

인디카포르의 부르하누딘 무타이 대표는 응답자 중 31.4%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관련해 대통

령 직무평가의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인디카포르의 조사 결과는 최근 수주 동안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조사연구소(LSI)는 조코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2월에 75%에서 4월에 76.2%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서클 서베이(Indonesia Circle Survey)가 2023년 12월 말과 2024년 1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자신의 장남 기브란이 당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네시아, 브라질 수도 이전 경험 배운다”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경험이 있는 브라질 당국과 협력한다.

심각한 도시문제로 수도 이전이 불가피한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군도 중심에 위치한 동부칼리만탄 지역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행정수도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울 계획이다.

최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를 방문한 밤방 수산또노 신수도 청장은 지난 4월 18일 브라질리아 당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브라질리아는 누산타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 등 해안가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내륙을 개발하기 위해 해발 1172m의 대초원에 새로 건설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

브라질리아 국제관계 담당 파코 브리토(Paco Britto) 사무총장은 “두 도시가 협력한다면 기념비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도시는 스마트시티 개발, 친환경 이니셔티브, 인프라개발, 기후변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누산타라를 신재생에너지, 도심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를 비롯한 첨단 교통시스템 등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설계할 계획이다.

앞서 누산타라 신수도청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호주 캔버라, 싱가포르, 중국 선전 등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여기가 맛집!—

# Pulau Sentosa Seafood Market

## - Sunter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네요! 한국은 벌써 녹음이 우거지고 따뜻한 초여름 날씨입니다. 푸릇해진 바깥 풍경이 더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따뜻한 햇살, 청량한 바람과 산뜻한 풀과 들꽃 냄새로 조금의 산책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5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5월은 결혼식도 많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등 감사함을 전해야 하는 기념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가 가족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진리의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들 먹으며 마음에 고이 담아 두기만 했던 사랑의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가족과 떨어져서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카르타에서도 가족같이 지내시는 분들과 먼저 연락해 따뜻한 가정의 달 보내 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모임도 많은 5월, 여러 사람끼리 둘러앉아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해산물 전문 식당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식당은 Pulau Sentosa Seafood Market입니다. 여러 지점이 많은데요. 화교들이 많은 자카르타 서부, 북부나 땅그랑에 위치해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골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카르타는 섬나라라서 해산물이 풍부하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혹시 더운 나라에서 해산물 잘못 먹었다 배탈 날까 봐 시도하기가 어렵고 꺼려지게 되잖아요. 이곳은 나름 위생적이고, 해산물도 싱싱한 편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다수의 인원이 식사하기에에도 경제적입니다. 사실 이 식당은 특별히 인테리어가 예쁘고, 잘 꾸며져 있는 않지만 안에 들어가면 널찍하고 큰 테이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가 꽤 큰 편인데요. 혹시 북적한 것이 싫으시다면, 프라이빗 룸도 있으니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식처럼 돌아가는 원탁도 있으니 다수의 사람들과 많은 요리를 시키신다면 식사하시기 편하게 원탁 자리로 안내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 Udang Rebus (132,000 루피아 ++)입니다. 일반 삶은 새우인데요. 식감도 탱글하고 통통한 것이 아주 신선했습니다. 다른 요리들도 간이 돼있기 때문에 새우는 새우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 양념이 안 돼있는 일반 맛을 선택했지만, 기본 구이, 마늘과 쯤 맛, 매운맛, 허브 수프 맛, 버터 맛, salted egg맛 등 여러 가지 옵션이 많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 Kerang Kampak Stim Bawang Putih (100,000 루피아 ++)입니다. 조개관자 살 요리인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리비나 조개관자 위에 얇은 당면을 올리고 다진 마늘을 올려 구워 내는 방식의 요리가 있었는데, 딱 그 요리였습니다.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조개관자와 알싸하고 고소한 마늘향이 아주 잘 어울려, 마늘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짭조름한 간장소스와 마늘향이 잘 배어진 삶은 당면도 정말 별미입니다. 이 요리 정말 별미입니다. 꼭 드셔 보세요. 강력 추천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 Ikan Krapu Macan Bakar Kecap (211,200루피아 ++)입니다. 생선 요리인데요. Krapu Macan은 한국어로 ‘갈색마블바리’ 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입니다. 사실 물고기 종류는 크게 Krapu Macan과 Kakap Putih (큰 입선 농어) 두 종류가 있고, 이것을 굽던지 (Bakar), 찌던지 (Stim), 튀기던지 (Goreng)를 선택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양념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Ikan Krapu Macan이 생선 살이 조금 더 쫄깃하고 탱탱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선택하였고 Kecap 소스에 굽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Kecap 이란 혹시 마트에서 새가 그려진 파란색 소스 통 ‘Bango’ 를 보신 적 있나요? 인도네시아 국민 소스인데요. 살짝 굴 소스 느낌인데 아주 달달한 소스입니다. 아주 단 굴 소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고 달달한 소스를 발라 구운 탱글탱글한 생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 아이들도 좋아할 맛이라 아이와 동반하신다면 밥반찬으로 꼭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Kepiting Merah Saos Padang (307,800루피아 ++)입니다. 게 요리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사시면서 가까운 싱가포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싱가포르가면 항상 칠리크랩 드시고 오시죠? 하지만 약간 가격이 부담스러웠잖아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칠리크랩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해산물 전문점에 가시면 그런 머드 크랩요리를 싱가포르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 식당의 게 요리도 아주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소스는 칠리, 빠당, salted egg, xiang la (중국의 마라느낌의 소스), 마늘 짬 소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취향껏 골라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인만큼 Padang 소스를 선택했는데요. 혹시 Padang 소스 평소에 즐기시는 분들이면 이 양념 추천합니다. Padang 소스는 맵고 신맛이 살짝 나고, 마늘의 알싸함도 느껴지는 한국인에게 잘 맞는 빨간 인도네시아 전통 양념인데요. 밥 비벼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게도 버리지 않고 신선했습니다.

푸르른 5월의 싱그러움과 함께 가족과 주변 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 달이 되기는 기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달인만큼 부모님, 아이들, 스승님께도 사랑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없고, 사랑과 웃음만이 넘쳐나는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6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식당 정보 : <Pulau Sentosa Seafood Market- Sunter>

음식 종류 : 해산물요리

가격대 : Rp 200,000-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10:00

주소 : Jl. Danau Sunter Barat No.12, RT.1/RW.10,  
Sunter Agung, Tanjung Priok, Jakarta Utara,  
Jakarta 14350

※ Google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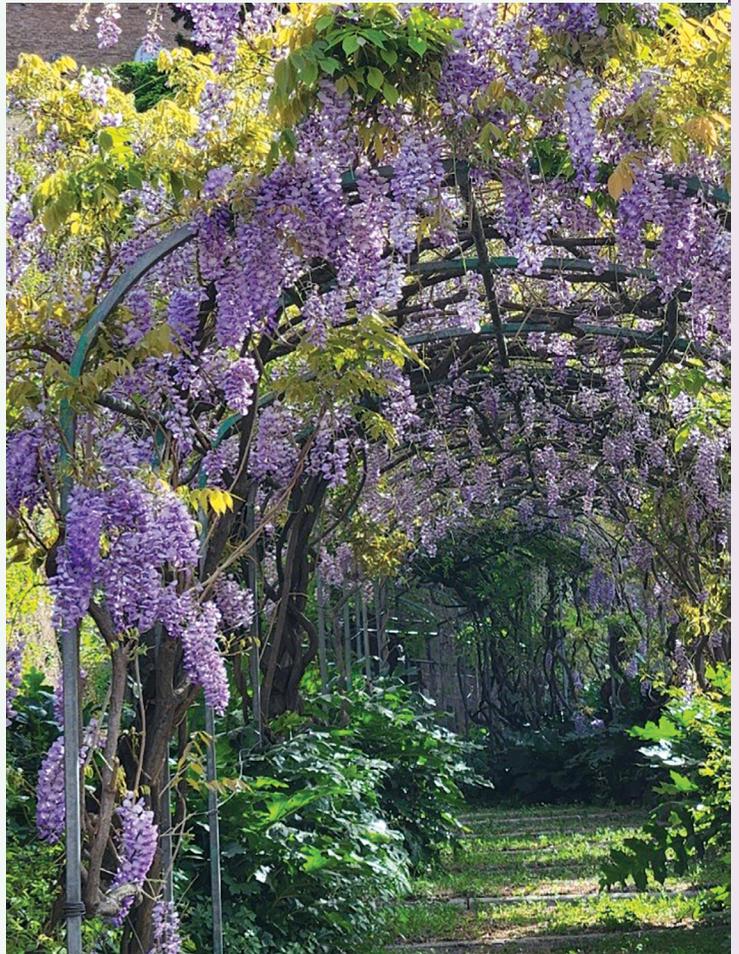
봄은

파릇한  
웃음입니다

꽁꽁 닫았던  
옷 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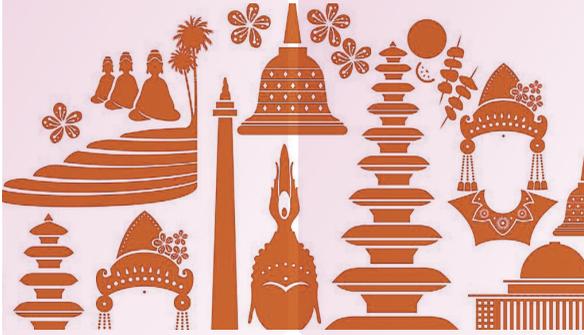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당신

나, 잘 살아 있다며



이미지: 등나무 꽃 by 정래

글: 김주명



##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비전쟁

지난 호에 이어

한편 디포네고로 왕자는 끄라톤에서 술탄 하명꾸부위노 3세의 정무고문이자 권한 대리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디포네고로의 행동을 눈여겨본 네덜란드의 족자 주지사 존 크로퍼드가 1812년 말경 디포네고로 왕자가 유능하고 협조적이니 차기 술탄으로 적합할 것 같다는 추천의견을 바타비아에 보냈고 며칠 후 레플스 총독대행이 직접 디포네고로에게 족자 술탄국의 태자 지위를 제안해 왔습니다. 엄연히 왕위를 지키고 있는 부왕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태자며 차기 술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수백 년간 자바땅을 좀먹어 들어오던 네덜란드 못지 않게 왕국을 유린하고 술탄 왕가를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영국을 디포네고로는 껄뻐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들키지 않도록 안으로 갈무리하며 그는 총독대행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후궁의 아들입니다. 족자 술탄국은 더 훌륭한 태자가 필요한 나라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후궁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고민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민족들이 내미는 선물에는 반드시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했고 이를 완곡히 거절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핑계가 필요했던 것뿐이었죠. 영국 측은 인품도 있고 왕실 장악력이나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에서 손색이 없는 디포네고로 왕자가 자기들 편이 되어준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디포네고로는 깊은 이슬람 신앙 위에, 궁밖에서 살면서 접하게 된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두 번씩이나 끄라톤을 유린한 이민족의 만행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했고 그 결과 이미 굳건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총독부는 다른 왕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술탄이 평생 열 명 가까운 왕후와 후궁을 들이는 왕가에서 왕자들은 얼마든지 넘쳐났습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디포네고로 왕자 자신도 평생 아홉 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죠. 하명꾸부위노 3세의 아들들 중 총독부의 눈에 든 것은 여덟 번째 왕자인 구스티 라덴 마스 입누자롯(Gusti Raden Mas Ibnu Jarot)이었습니다. 그는 구스티 칸쟁 라투 끈쨌노 (Gusti Kanjeng Ratu Kencono) 왕비에



인도네시아 전통 와양 인형극에 등장하는 아르쥬나(좌)와 크레스나(우)  
출처- <https://wayang.wordpress.com/2010/03/07/jatidiri-dan-sikap-hidup-kresna-27-kedudukan-dan-sikap-kresna-dalam-masyarakat/>

게서 1804년 4월 3일 태어났고 스빠히 전투가 있던 1812년엔 겨우 여덟 살이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입누자룻 왕자의 사이는 마치 인디아 라마야나(Ramayana) 전설에 나오는 크레스나(Kresna)와 아르쥬나(Arjuna) 같은 관계였다고 전해집니다. 크레스나는 힌두신 비슈누의 화신으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Mahabharata)에서는 아르쥬나의 절친으로 등장하고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주인공 아르쥬나의 조연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비슈누신의 모습으로 화해 친족과의 전쟁을 거부하는 아르쥬나를 다시 전쟁터에 나서도록 설득하죠. 디포네고로가 많은 이복형제들 중 스무살 가까이 차이지는 입누자룻 왕자를 각별하게 여긴 것은 그의 온순한 성품이 아버지 하명꾸부위노 3세를 너무나 쪽 빼어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랬기에 영국 총독부 역시 입누자룻 왕자에게 눈도장을 찍어 두었던 것이고요.

재상 신두네고로는 날로 악화되던 하명꾸부위노 3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정작 자신이 스빠히 전투 당시 입은 부상이 도져 1813년 어느 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왕궁의 충신들이 하나 둘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1813년 12월 2일 임명된 후임 재상은 자뻘(Japan - 지금의 모조꺼르토 (Mojokerto)) 군

수였던 마스 뚜멍궁 수마디뿌라(Mas Tumenggung Sumadipura)였습니다. 그는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영주였어요. 대개는 전임 재상의 자식이나 피붙이 중 한 명을 선택해 다음 재상을 대물림시켰지만 디포네고로 왕자는 당시 모조꺼르토를 동부자바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는 수완을 발휘한 수마디뿌라를 족자 술탄국 내정을 관장할 재상으로 직접 발탁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누레쥬 4세 재상’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일천한 가문과 배경을 가진 그를 왕도의 고위 귀족들이 순순히 재상으로 떠받들었을 리 없습니다. 기득권 귀족들의 시기를 한몸에 받은 재상은 한껏 풀이 죽어 처음엔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며 대전에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으므로 디포네고로 왕자가 늘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다누레쥬 4세 재상도 끄라톤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재상의 자리에서 37년간이나 머물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디포네고로 왕자와 평생의 원수가 되리란 사실도 말입니다.

하명꾸부위노 3세의 건강은 날로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대 술탄들이 가졌던

용기와 배포를 전혀 닳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자식들 대부분이 자신의 유약함을 그대로 빼어박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매일 문안오는 디포네고로를 만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굳은 심지를 가진 큰 아들이 자신을 닳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들아, 아직도 술탄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디포네고로 왕자는 부왕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네, 아버지. 술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술탄이 아니라 이민족들을 모두 몰아낸 자바방 전체의 술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또 다시 족자 술탄국의 왕좌를 거절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의 말속에 담긴 원대한 포부에 하명꾸부위노 3세는 마음이 푸근해짐을 느꼈습니다. 사실 하명꾸부위노 3세도, 디포네고로 왕자도, 아무리 그들이 원한다 해서 디포네고로가 술탄이 되는 것을 영국이 승인할 리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포네고로 왕자가 어떤 식으로든 왕국의 미래를 일정 부분 좌우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명꾸부위노 3세는 마주 잡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옅은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하명꾸부위노 3세는 두 번째 즉위 후 불과 2년 만인 1814년 11월 3일,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술탄으로 재위한 것은 두 번의 재위기간을 모두 합쳐 865일에 불과했으니 2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대한 왕실 장례의식이 치러진 후 그의 유해는 이모

기리 빠지마탄(Pajimatan)에 묻혔고 그의 묘역은 아스타나 까수와르간(Astana Kasuwargan)이라 불렸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빨리 저물고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의 어린 이복동생 입누자룻 왕자는 그때 막 10살의 나이로 하명꾸부위노 4세가 되어 술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디포네고로 왕자가 국사를 도울 섭정이 될 것을 누구도 의심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자기 편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찌감치 간파한 래플스 총독은 영국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합니다. 그와 깊은 교분을 나누고 있던 빠꾸알람 1세를 섭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페히 전투에서 영국이 끄라톤을 함락시킨 후 영국에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구인 빠꾸알라만 봉국을 할양받고 그곳의 영주가 된 빠꾸알람 1세는 말레이 반도 빼냥섬으로 유배된 하명꾸부위노 2세의 동생입니다. 그가 어린 하명꾸부위노 4세를 대신해 족자 술탄국의 모든 국사를 영국 총독부의 입맛에 맞게 결정할 것임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지만 감히 누구도 총독부의 결정에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로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요.



빠꾸알람 1세의 초상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125605764@N04/22639770464>

“수마디뿌라공(公), 당신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끄라톤을 멀리 떠나 있진 않겠지만 이제 당신이 술탄 전하와 섭정전하를 가장 가까이에서 잘 보필해야 하오.”

디포네고로 왕자는 재상 다누레조 4세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아버지 술탄 하명꾸부위노 3세의 장례식을 위해 빠꾸알라만 봉국에서 왔다가 돌아가지 않은 채 곧바로 술탄의 섭정이 된 빠꾸알람 1세의 견제를 벌써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하명꾸부위노 2세와 함께 당시 어린 무스타하르 왕자를 흐뭇한 눈으로 지켜보던 노토꾸수모 왕자는 여전히 혈색 좋은 얼굴로 재치있게 대화를 이끌었지만 왕실에서 영향력을 키워 나가던 디포네고로 왕자를 더 이상 흐뭇하게만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토꾸수모공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명꾸부위노 4세가 성인이 되기 전에 끄라톤에 공의 사람들을 심어 족자 술탄국이 우리 총독부에 더욱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오. 그것이 우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빠꾸알라만 봉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 아니요?”

래플스 총독은 서신을 통해 빠꾸알람 1세에게 그렇게 속삭였죠. 그러기 위해선 왕가와 귀족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던 디포네고로 왕자의 힘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빠꾸알람 1세가 섭정이 된 후 끄라톤 궁에서 디포네고로의 행동은 크게 제한되기 시작했고 많은 회의와 행사들이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열렸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하명꾸부위노 4세를 만나는 것은 다행히 여전히 자유로웠지만 그것은 어린 술탄이 전혀 실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난 수마디뿌라공만 믿겠소.”

디포네고로 왕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다누레조 재상에게 그렇게 여러번 다짐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술탄을 만나러 오는 일을 빼고는 대부분 뜨갈레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목가적인 생활을 즐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족자와 수라카르타는 물론 자바 전역의 이슬람 사회와 인편과 서신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백성들의 목소리와 지방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뜨갈레조에는 귀족들과 이슬람 학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어 시종들을 제외하고도 식솔들만 수백 명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그들 중엔 학문과 종교를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고 일단의 젊은이들은 부기스 부대 장교출신 무관들로부터 무술과 창검술을 배웠으므로 하궁 왕후의 저택은 물론 뜨갈레조 일대가 학교나 병영처럼 기능하면서 한껏 활기에 넘쳤습니다.

“고모님, 어서 오세요.”

뜨갈레조를 방문한 라덴 아유 무르실라(Raden Ayu Mursilla)는 돌아가신 술탄 하명꾸부위노 3세의 여동생으로 이모기리의 묘소를 돌아보고 수라카르타 가까운 빠장(Pajang)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다. 그녀는 열 살 남짓한 아들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작은 몸집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아이의 이름은 무슬림 모하마드 칼리파(Muslim Mochammad Khalifah)라고 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구나.”

선지자의 이름을 딴 아이의 이름은 이미 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슬림이란 알라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하마드는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무협 부산기업협의회, 한인회와 간담회 가져



한국무역협회 부산기업협의회는 2024년 4월 22일(월) 셰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 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별히 한인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지역본부장 및 부산기업협의회 기업인 12명이 2024.4.20.(토)~25(목) 4박 6일의 일정으로 자카르타에 머물면서 산업시찰, 투자환경 조사 및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인니 한인역사는 올해로 104주년이 되었다. 초기 50년과는 다른 양국 수교 50년의 역사는 양국의 교류가 활발한 역동적인 시기였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이 적합한 파트너이자 투자자로서 이번 방문이 미래의 물꼬를 트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부산기업협의회 이수태 회장은 “인도네시아 한인회와의 간담회가 한인니 경제 교류의 주춧돌이 되는 뜻깊은 시간” 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부산기업협의회 이수태회장과  
박재한 한인회장

## 즐거운 게임을 통해 영어 실력이 쑥쑥 -JIKS 초등 English Game Time 행사-

2024년 4월 17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4학년도 초등 English Game Time 행사가 열렸다.

지난 4월 17일 체육관에서 진행된 English Game Time에 영어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다양한 영어 놀이에 1~3학년의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였다.

‘Flash card memory relay’ 에서 영어 단어를 맞추며 릴레이를 하였고, ‘The floor is lava’ 에서 단어를 맞춰야만 이동할 수 있는 게임을 하였다. ‘Flyswatter Race’ 를 통해 선생님들이 외친 단어에 맞게 레이스를 하였고, ‘Flashcard Fishing’ 에서는 영어 단어를 낚아 설명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 행사를 준비한 초등 영어과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영어 게임을 즐기면서 영어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영어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 뿌듯하다고 하였다. 행사 관련 영상은 직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39Mjzhulvq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nglish Game 전체 모습



Flashcard Fishing 활동 모습



The floor is lava 활동 모습



Flash card memory relay 활동 모습

## 콘택트 렌즈 제작/유통 업체

# PT. DREAMCON LENS INDONESIA 김진경 이사

2억 7550만 명 인구가 움직이는 인도네시아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의 성공사례가  
한인 청년들에게 하나의 영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리더 칼럼을 기획했다.



코로나19 로 시장규모가 잠시 위축되었던 인도네시아 콘택트(Contact) 렌즈 시장이 2021년부터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한류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젊은 층 사이에 한국 뷰티 렌즈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K렌즈가 인도네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첫 번째 젊은 한상기업인으로 PT. DREAMCON LENS INDONESIA 김진경 이사를 초대해 K렌즈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를 들어보았다.

영상 20도를 웃도는 날씨지만 화사한 총천연색의 옷차림에서 인도네시아에도 봄이 느껴진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콘택트렌즈 사업을 하는 김진경 대표는 아직도 20대처럼 젊어 보인다. 네 살 시현이와 일곱 살 서우 남매를 키우면서 ‘샤우팅’ 과 ‘넉다운’ 은 필수일 텐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빛나게 할까? 바로 ‘마음의 창’ 이 불리는 맑은 눈 때문 이리라. 둘째 시현이의 백일에 잠을 안 자는 첫째와 꿈지락꿈지락 엄마를 찾는 둘째를 달래며 차린 정갈한 백일 삼신상에서도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숙제를 마친다는 김진경 이사는 우리 시대의 현명한 ‘워킹맘’ 이기도 하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T. DREAMCON LENS INDONESIA 이사 김진경입니다.

저희 PT. DREAMCON LENS INDONESIA는 콘택트렌즈 제조사의 자사브랜드인 ARIA를 한국으로부터 독점 수입해 인도네시아에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온·오프라인 리셀러와 계약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 계약한 바이어는 ITC KUNINGAN에 ARIA 단독매장을 오픈하여 함께 홍보 중입니다.

-가족관계 등 개인 프로필-

1988생 부산 출신으로 2015년에 남편과 결혼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첫째를 낳고 19년도에는 둘째를 낳아 이제는 네 가족이 인니 생활 중입니다. 더위를 엄청 타는 제가 인니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할 지 몰랐지만 고민 끝에 시작한 렌즈사업과 남편의 지원 덕분에 벌써 9년차 인도네시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 초기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 문턱을 어떻게 개척하셨나요? 16년도에 회사 설립 이후 한국 콘택트렌즈 유통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결도 궁금합니다.**

2016년 회사를 설립은 했지만, 그 당시 판매허가부터 수입허가까지 4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허가 시스템이 새로 개편되는 시기라 더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허가가 모두 끝나 처음으로 한국에 오더 넣던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느낀 첫 성취감과 기쁨이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테스트물량으로 적은 수량을 주문해서 문제없이 통관되어 사무실로 렌즈가 도착되던 날, 기뻐하던 그 때의 설렘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으로 렌즈 사업은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난항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어떡하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브로셔를 들고 직접 지방에 있는 작은 렌즈 판매사부터 대형 안경점을 찾아가며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1년 첫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도 온·오프라인으로 바이어를 찾으며 사업을 키워 나가는 중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컬러렌즈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각 국가별 트렌드와 선호도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제조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Q. 한국은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콘택트렌즈 시장이 성장하는 나라지요.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인도네시아도 콘택트렌즈 시장이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력 보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젊은 인구 비율이 높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콘택트렌즈 사용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더불어 콘택트렌즈의 편의성과 시각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콘택트렌즈 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며, 인프라 및 교육 수준에 따른 도전과 함께 경쟁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시장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콘택트렌즈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며, 국내외 제조업체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인프라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콘택트렌즈 시장이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Q.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콘택트렌즈 사업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시장 잠재력:**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콘택트렌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시력 보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의 기회:**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만, 콘택트렌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나 판매 업체에게 소비자 교육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시장:** 관광객들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콘택트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양지나 관광 명소 근처에 콘택트렌즈 판매점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리적 특성:** 인도네시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에 규모와 수준이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 및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인프라:**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콘택트렌즈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안전 및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콘택트렌즈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강력한 마케팅 및 제품 혁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콘택트렌즈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시장 조사와 전략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역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일 것입니다.

## Q. 인도네시아도 '인구 고령화'가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도네시아의 인구 고령화가 콘택트렌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시력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콘택트렌즈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안 및 기타 시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구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콘택트렌즈 및 기타 시력 보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시력 보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령층도 콘택트렌즈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는 인도네시아의 콘택트렌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소득 수준, 시장 규제, 건강 인프라 등의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Q. 한국은 아큐브, 바슈롬 등의 일부 브랜드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요. 인도네시아도 비슷한가요? 종교에 무관하게 인도네시아인들도 멋을 위해, 안경 대용품으로 렌즈를 착용하나요?

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콘택트렌즈 시장에는 주요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큐브, 바슈롬을 비롯한 국제적인 브랜드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제조된 로컬 브랜드들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안경 대신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시각적인 외모에 더욱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즈는 안경과 달리 얼굴의 형태나 외모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력 보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패션적 요소나 편의성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나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 콘택트렌즈 사용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콘택트렌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 있는 시력 보정 제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ITC KUNINGAN ARIA 매장

Q. PT. DREAMCON LENS INDONESIA 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제조사의 기술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표면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겉면이 매끄럽고, 색소가 밖으로 새지 않는 것이 품질을 좌우하는데, 드림콘의 플루시어 공법은 렌즈 양쪽 겉면과 색소를 모두 코팅해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공법입니다.

전세계에서 드림콘만 구현한 기술입니다. 게다가 드림콘은 세계 최초로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보통 콘택트렌즈는 제조 후 보관 가능한 유효기간이 있고, 대개 3~5년 정도인데, 유효기간 7년은 재고 관리가 핵심인 렌즈시장에서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렌즈 디자인을 매 시즌마다 한국에서 받아 직접 샘플을 받아 착용해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디자인은 아니지만 조금씩 디자인을 늘려가고 있으며, 트렌드에 앞서가는 디자인을 선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렌즈를 착용해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조사의 자체 브랜드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직접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나 리셀러가 원하는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인도네시아 렌즈시장에서 ARIA가 브랜드 탑3에 드는 것 과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Q. '사람이 인재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내의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택트렌즈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콘택트렌즈 착용 방법과 관리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또 한 꾸준한 신제품 런칭으로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Q.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대하기에는 오래가는 일들이요.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스리는 이사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육아하면서 정신없이 바쁘지는 않지만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이 끝도 없이 생겨 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격상 생각을 오래하는 스타일이라 쉽게 털어버리는 성격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 힘든데요. 그럴 땐 저와는 다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남편이 옆에서 조언을 잘 해줘서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도 있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음악을 크게 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일석이조 더라구요... 최근에 애들 때문에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동네 돌고 나면 확실히 리프레쉬가 되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을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아도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Q .그렇군요. 스포츠 세계에 ‘기술이 비슷하면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앓는 ‘워킹맘우울증’은 없었나요?**

우울증은 특별히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워킹맘처럼 육아도 일도 혼자서 하지 않고, 여기선 감사하게도 유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나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당연히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하려는 노력과 책임감, 사회적 기대 등으로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오면 깊이 오는 편이라 이 질문의 답변처럼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Q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도전해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타국이라 제약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숏폼 광고로 인기를 얻어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기회가 많은 시기에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이름 알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도전해요.



(인터뷰 진행: 이영미 편집위원)

지난 호에 이어

## 다이어트 (4)

### 식단과 영양

학생: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 비만해졌는데도 살이 찌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거주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람들은 짐승의 공격이나 태풍으로부터 안정이 되었어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활동량은 줄어들고 음식물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음식물과 물자는 풍부해 졌고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이중에 식습관이 현대인들의 비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흰쌀, 먹기 좋게 변형된 가루로 만든 음식 등)의 섭취로, 에너지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 형태로 복부나 팔, 다리 등에 저장되어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식단은 탄수화물7: 단백질1: 지방2 정도의 비율로 탄수화물 섭취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학생: 그럼 교수님!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님: 우선은 특별한 비법을 찾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누군가 “잠은 잘 주무세요?” 라고 물었고, “네 수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것은 1)중간에 깬다 2)꿈을 자주 꾸다 3)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4)잠이 잘 안온다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수면의 질 즉, 깊은 잠을 자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은 “소화가 잘 된다”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자주 더부룩하고, 헛구역, 가스가 찬다, 명치 불편감 중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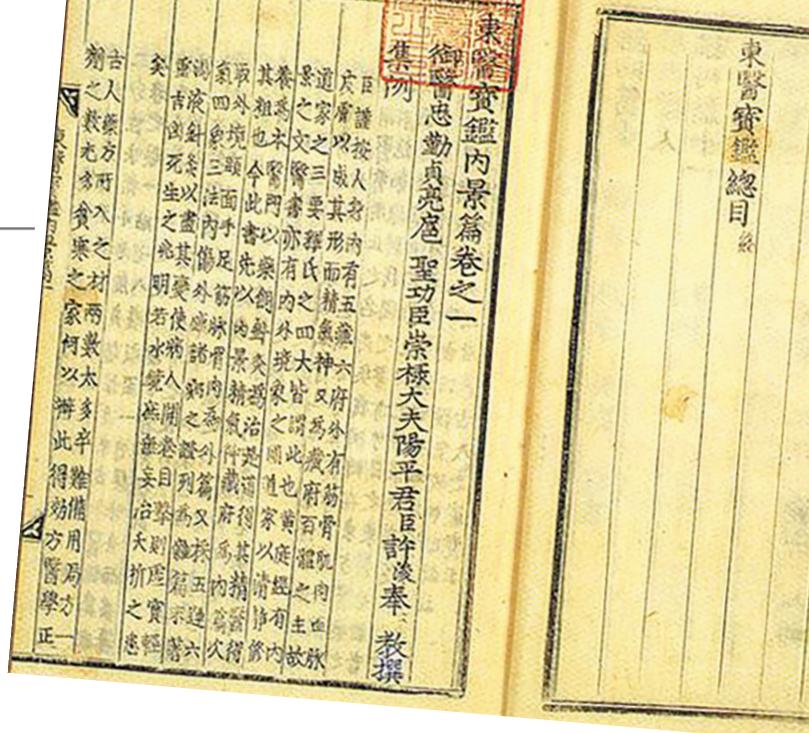
한 가지 증상이 있다면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방법이나 시간, 강도는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 휴식과 식단 여가생활의 비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아야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전문가와 교류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고, 나에게 더 맞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 나간다면 분명 살빼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이상적인 식사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학생: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교수님: 하루 세끼를 기본으로 하되 자신의 음식섭취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가령 공복상태를 16시간 20시간 가진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고, 공복상태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일 때 무조건 굵는 것이 아니라 설탕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도 해치지 않고 체중 또한 유지 또는 감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끼를 드시는 분이나, 소량을 나누어 하루에 여러 끼를 드시는 분들이라도 인체활동에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해진 물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루틴을 살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다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피로감,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뇌는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을 측정하여 부족하면 섭취량을 늘리고, 많으면 줄이는 식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탄단지(탄수화물:단백질:지방) 3: 4: 3 이니 1: 6: 3이니 하는 비율은 참고로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태와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그럼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하나요?

교수님: 위에 경상도 교수님이 정제곡물과 단순당, 저질식품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소화력과 식습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추천하긴 힘들지만, 큰 틀에서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일으키는 밀가루음식(면, 피자, 빵 등)과 설탕류는 피하고,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고려하여 식단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인슐린을 천천히 올리는)을 섭취하고, 두부로 만든 면, 아보카도로 만든 샌드위치 등 여러 건강 식단을 공부하여, 실생활에 활용하여 맛과 영양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음식 섭취에도 순서가 있나요?

교수님: 1번이 채소, 과일 2번이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3번이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섭취하게 되면 빠른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슐린 또한 천천히 상승시킴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중감량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 삼키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줄이고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학생: 굶어도 똑같이 굶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적게 먹고 굶으면 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 억지로 식욕을 참는 것은 어렵고 괴로운 일이므로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서 지방합성을 촉진하여 체중감량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24시간을, 음식섭취 시간과 단식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한 양을 섭취한 뒤, 단식하는 것은 식욕억제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를 낮출 뿐 아니라 괴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이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동안 지방분해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체중감량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게 됩니다.

### 단식 시행 시 참고사항과 주의사항

\*참고사항: 공복상태 16시간이후 지방분해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주의 사항: 위장의 기능이 망가져 있는 경우, 장시간 단식하면 속 쓰림이나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먼저 받고 단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기존의 굶는 다이어트와 단식 다이어트의 다른 점

1. 굶는 다이어트는 적게 섭취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칫 영양 불균형이 되기 쉽지만, 단식의 경우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계산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합니다.

2. 굶는 다이어트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강박강념 때문에 필요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기 힘든 반면, 단식은 정해진 시간에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시간에는 포만감을 느낄 만큼 음식을 섭취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식단선택과 섭취방법은 다이어트 메뉴얼에 맞춥니다.

**꿀팁:** 과식과 폭식은 피해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식, 폭식했다면 갑자기 체중 증가로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무조건 적게 먹거나 단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개인별로 맞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체내에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이 수분과 체내에 저장되면서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식, 폭식 다음날 배가 안 고프다면 한 두 끼는 거르시고, 배가 고프다면 평소와 비슷한 양을 드시되, 탄수화물, 과일 주스, 탄산음료는 당분간 절제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연어, 아보카도, 녹색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소모시켜 주세요.  
특히 하체운동 비율을 높이면 글리코젠 소비가 촉진됩니다.

## 체형별 다이어트 방법

◆하반신 비만형: 소화기가 약하고, 아랫배가 냉하신 분들이 많은 유형으로 인삼, 황기, 대추 등의 따뜻한 기운의 한약재가 잘 맞는 편입니다.

골반이 틀어졌거나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무너진 케이스가 많으므로, 먹는 양을 줄이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맞추므로써, 하체비만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갱년기, 화병, 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인삼, 황기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반신 비만형: 열이 많은 체형으로 연교, 황금, 시호 같은 서늘한 기운의 한약재가 잘 맞는 편입니다. 소화기관이 발달하여 식사를 빨리하고 대충 씹어서 삼키는 경향이 있으며, 과식할 수 있으므로 적량의 식사를 하도록 절제된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짙은 설사나 기력이 부족하여 몸이 처지는 분들은 위 한약재를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올챙이배 유형: 과음, 과식, 운동부족이신 분에게 잘 나타나며 일명 나잇살 이라고 부릅니다. 올챙이배 분들의 특징 중에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튀어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올챙이배는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육량을 늘리려고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오히려 피곤하여 중도 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조금씩 운동 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기보다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대신에,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 술, 탄산음료, 튀긴 음식은 줄이시고,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복부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신 비만형: 식욕이 왕성하시거나 반대로 소식하고 있는데 붓기가 안 빠지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골격이 크신 분들은 허리둘레만 보정이 되어도 늘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로 보여 집니다.

붓기가 안 빠지는 분들은 대사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우선 몸을 안정시키고, 붓기를 빼신 후 다이어트를 하셔야 체중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둥굴레차, 차전자차, 마, 도라지류의 한약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차를 복용하였는데, 효과가 없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폭식, 과식 유형: 일명 대식가, 위가 크신 분들이거나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로 식욕 조절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식욕을 주체할 수 없어 위 밴드 같은 수술을 받거나, 약물, 주사요법에 의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무엇이 식욕을 자극하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자신에게 맞는 처방과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말을 강독으로 데려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억지로 참으려고 하기 보다는 폭식하고 과식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감으로써 식단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다이어트는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숙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어려운 숙제도 좋은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 나간다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을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 출발 전에 그물을 손보고 미끼를 선별하는 등 여러 준비 작업들을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를 잘 마쳐 놓으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 보관하기까지 순탄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기 까지는 지루하고 긴 여정일지 모르지만, 방향을 바로잡은 후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 같이 큰 결실을 맛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혼자서도 조금씩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막히는 부분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고요.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킵 고잉 킵 고잉!!

韓方

#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 MEMPERINGATI HARI ANAK2 DAN KELUARGA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TGL) : 2024년 5월 23일(TGL 23, MEI)  
Hari Kamis, 오전 10시 30분(Jam 10:30)
- 장소 (Tempat) : Aula Serba Guna CITRA RAYA SPORT CLUB(Bundaran 3)
- 문의 : 0812 8155 299 (윤종찬 부회장)  
0813 1850 7850 (유두선 총무)

주최 : 재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후원회 (회장 : 최진덕)

주관 : 씨뜨라 땅그랑 코리안

후원 : 재외동포재단 /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 / 무궁화유통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9 3107 7825  
YAYASAN WARGA KOREA TANGERANG

# 행복은 어디에 깃드는가!

강인수(한국문협 인니지부 재무국장)



밤을 이겨낸 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 자카르타의 새벽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성큼 다가오면 지난 밤 잠들었던 생명체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다. 창문을 열면 야자나무에 잠시 걸려 있던 새벽 별이 짧은 인사를 하고 수줍게 도망가 버린다. 오늘은 새벽에 비가 오지 않았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며 나무들 사이를 배회하더니 시끄러운 소리로 해가 떴다고 조잘거린다.

베란다로 나가니 가까운 거리에서 놀던 새들이 눈치 빠르게 재빨리 몸을 피해 날아가 버린다. 작은 부리로 마른 나뭇잎을 콧속 짚어 종종걸음으로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침 정원 나뭇잎을 쓸어 담는 청소부들의 빗자루 소리를 듣고 있다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드디어 나도 밤을 이겨냈노라고 소리치고 싶어진다. 저들의 “슬라맛 빠기” 의 아침 인사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내 방 창문을 두드리며 어서 밤새 떨어진 캄보자 꽃을 주우러 나오라 속삭이는 것 같다.

언젠가 나는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위가 탈이 났었는데 밥 한 톨을 못 넘겨 몸무게가 줄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타국에서 병을 이겨야 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병을 앓을 때 죽어도 한국 가서 죽어야 하는데... 라는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해외에 산다면 누구나 갖는 공통점이 아닐까? 무엇보다 밤이 무서웠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슬픔과 아직 어린 것들을 두고 죽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새벽을 이겨내고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던 심각한 병자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마다 찾아와 가슴을 조여왔다. 병실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 짐을 싸서 빨리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린 자녀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남편이 잘 돌보리라는 믿음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습하고 더운 바람에 몸은 적응이 되었던 건지 인천 공항에 도착한 나는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바들바들 떨며 병원으로 바로 직행하였다.

입원절차를 거쳐 훈훈한 병실에 누우니 곧 다 나올 것 같은 안심이 들었다. 검사는 내일부터니 오늘은 편히 쉬라고 담당 교수님이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나가자 창밖에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눈이던가. 아이들 방학 때만 나오느라 여름철 뜨거울 때와 장마철에만 잠시 한국에 머물다 출국을 했던 나로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눈이 아름답고 반가웠다.

이튿날 모든 검사가 진행되고 아팠던 심장도 늦은 밤까지 모조리 검사했다. 하혈이 심했던 산부인과, 내과, 심장내과까지 검사하고 나니 삼 사일이 훌쩍 지나갔다. 결과는 그저 역류성 식도염 그거 하나뿐이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과 함께 음식물이 역류하는 병이다. 음식조절과 운동만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 했다. 그런데 나는 이후에도 밥을 전혀 먹지 못했다, 담당 선생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신경정신과를 가보라고 하셨다. 나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신경정신과라... 그렇다면 “저는 퇴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친절으로 몸을 옮겼다. 돌아보면 예기치 않았던 현실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했던 남편의 상황과 아이들을 새로운 학교로 옮겨주는 일 등, 나 자신도 미처 모르게 속앓이를 했던 것 같다.

서울 집에서 머무는 동안 점점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다. 죽을 것 같던 위장병도 하루하루 나아지기 시작했다. 보양죽을 먹고 과일 주스를 마시며 기운을 차리니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날이 성큼 다가왔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깊은 고민을 하며 짐을 다시 싸다.

자카르타에 돌아와서 나는 조용히 세상을 돌아보았다. 길 위의 사람들, 코코넛을 빵아 빵을 굽는 여인의 수레, 오토바이를 개조한 바자이가 요란하게 시동 거는 소리, 가난해도 행복한 커피를 파는 젊은 상인의 웃음소리, 비 오는 날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장난질,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나를 웃도록 만들었다. 전에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고 성가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 가난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 할 수 있느냐며 고개를 갸우뚱 한 적이 있다. 언젠가부터 나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로컬시장으로 향한다. 현지인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는 시장으로 스며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핀다. 고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에서 행복을 본다. 이상하게도 저 마르고 까맣게 그을려진 몸에서 엔도르핀이 나오는 것이 보인다. 감정과 행복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에게도 전달이 된다. 주위를 살피지 못했던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의 힘찬 소리가 들려온다. 맨살을 드러낸 열대과일 ‘즈룩발리Jeruk Bali’ 를 보며 오랜만에 침을 꿀꺽 삼키고 나니 없던 식욕도 돌아온다.

행복은 어디에 깃드는가!

간밤에 잘 자고 기지개 켜는 나의 어깨 위에, 아침이면 열심히 차를 닦는 기사 아저씨들의 흥얼거리는 콧노래에, 정원에 푹 떨어진 코코넛 열매 위에 모두 깃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흔히들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참살이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다. 값진 음식과 건강식품을 먹고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어 내면 우리 인생의 허전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현지인들이 소소한 일에 깔깔 웃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다.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행복은 삶에 편안함을 먹여주는 것이다. 옥죄여 오는 경쟁을 뒤로 하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허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날마다 감사한 아침을 맞는 것이다. ‘슬라맛 빠기’ 로부터 ‘슬라맛 말람’ 에 이르기까지 적도의 태양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이다. 들리는가? 근심과 슬픔을 어제로 보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찾아오는 새벽의 소리를.

## 그 모든 게 다 사랑이었네



『 』

하세가와 요시후미 지음, 김소연 옮김, 천개의바람, 2013

『おかあちゃんがつくったる』 (2012)

유난히 아버지가 보고 싶은 날이 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런 날에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실컷 울고 나오곤 한다. 추억이 많은 게 괴로울까, 같이 하지 못한 날이 많은 게 더 괴로울까?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이별을 한 사람들의 마음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특히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작가 하세가와 요시후미는 『엄마가 만들었어』를 통해 아빠가 없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엄마가 만들었어』와 함께 『아빠, 잘 있어요?』, 『하루 종일 미술시간』 이렇게 세 편은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자전적 이야기로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세 인물 - 엄마, 아빠, 선생님을 그리고 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그린 『내가 라면을 먹을 때』로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또한 백히나 작가의 작품들을 번역하여 일본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유머와 해학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독자들에게 그림과 글을 읽는 재미를 준다. 아이가 그린 듯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붓터치에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다. 간결하면서도 위트 있는 그의 글은 작품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준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랑 누나랑 엄마 세 식구만 남았지만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일본식 다다미 방 안에 주인공과 누나, 엄마가 밥상을 마주 보고 앉아있다. 상에는 뜨끈한 연기가 느껴지는 맛난 요리가 있고, 식사를 즐기는 듯한 가족들의 표정도 한눈에 들어온다. ‘이 자리에 누가 없는 것 같네’ 하고 두리번거리면 한쪽 벽에 자리 잡은 아빠의 사진과 위패가 보인다. 독자들은 여기서 살짝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엄마랑만 남은 채, 넉넉해 보이지 않는 이 집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생활하는 엄마는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준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오거나 새 가방을 들고 오면 아이는 부러운 마음에 엄마에게 사 달라고 조른다. 엄마는 재봉틀로 다 만들 수 있으니 살 필요 없다며 칭바치, 체육복, 가방 등 무엇이든 똑딱 지어낸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성품이 아닌 엄마표 물건들은 놀림거리가 될 뿐이다. 어느 날, 학교에 아빠 참관수업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아온 아이. 아빠 대신 엄마가 가겠다고 하자 아이는 그동안 속상했던 울분을 터트리며 외친다.

“아빠 만들어 줘. 뭐든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아빠를 만들어 줘!”



작품의 중간쯤 등장하는 그 아이의 이름은 요시후미. 작가의 이름이다. 단순하게 보이는 글과 그림 속에서도 아이와 엄마의 순간순간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이유는 본인이 겪은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지금의 모습이 있음에 알기에, 다른 설명 없이도 작가 본인의 마음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재봉틀로 아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책을 읽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엄마가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갈지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진다.



아빠 참관 수업 당일. 아이는 엄마가 당연히 못 올 거라 생각하고 교실 뒤를 돌아보다 숨이 멎을 듯 놀란다. 엄마가 아빠들이 입는 양복차림으로 뒤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뒤로 살짝 다가와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만들었어.”** 자칫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재치 넘치는 방법으로 풀어낸 엄마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이가 짓는 표정 역시 압권이다. 감동은커녕 ‘세상에 우리 엄마 진짜… 양복을 만들어 입고 오다니!’ 이런 반응은 평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만이 할 수 있다. 가난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인터뷰했던 작가의 말이 떠오른다. 모든 작품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유머러스한 태도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맨 처음 책장을 펼치면 열린 하늘색 면지가 뒤따라 나온다.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궁금한 마음으로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보이는 뒤쪽 면지. 앞 면지와 똑같은 하늘색 바탕에 하얀 뭉게구름이 떠있는 하늘이 되어 있다. 거기에 깔끔한 책 뒤표지 마무리까지. 못 만드는 것 없는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펼쳐 놓고 아이는 자랑스럽게 활짝 웃는다. 아빠가 안계서도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 그대로, 정말 잘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가의 마지막 설정 또한 독자를 미소 짓게 만든다.

그 시절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가 존재한 모든 순간이 다 사랑이었다. 이 작품 속에서도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면 독자는 느낄 수 있다. 모든 페이지가 다 엄마의 사랑이었노라고.



우리 엄마는 못 만드는 것 없어. 나는, 엄마가 못 만들었어.

# 코이카-인도네시아 보건부,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 협의의사록(R/D) 서명

-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26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협의의사록 체결
-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재난대응 준비도 향상 및 양국 간 보건분야 협력 강화 기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6일 오후 인도네시아 보건부 청사에서 보건부와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 서명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무상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코이카는 2024년~2027년까지 1,200만 달러 규모로 롬복 소재 마타람에 의료분야 재난대응 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교육훈련과정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강사 양성 및 의료인력 및 지역 사회 역량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빈번한 지진, 화산 등 대형 재난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임에도 재난대응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 및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 대응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코이카의 지원사업은 인도네시아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길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에 대한 서명식은 코이카가 보건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코이카가 인도네시아 보건복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꾸따 위바와(Kunta Wibawa)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과 정윤길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꾸따 위바와(Kunta Wibawa)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은 사업 지원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보건부와 코이카 간 보건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인도네시아의 보건 혁신 의제(Health Transformation Agenda) 달성에 한국 정부가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 코이카 (KOICA · 한국국제협력단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별 프로그램(프로젝트/개발건설링),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 글로벌연수, 국제기구협력, 민관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재난복구지원, 긴급구호 등),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기관이다.

(제공: 코이카)



## 동남아시아 화인, 보이지 않는 영토 그러나 상상되는 네트워크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상상을 초월하는 재력을 가지고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금융, 항공사, 부동산,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화인들. 2018년 개봉한 미국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속 동남아시아 화인의 모습이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인 남자 주인공 닉이 여자친구 레이첼 추를 만나는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색이 시작되면서, 홍콩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추 가문, 대만에서 플라스틱 사업을 하는 추 가문 등이 언급되고, 싱가포르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순식간에 소식을 알게 된다. 말로만 듣던 화교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실제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계기로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동남아로 왔을까? 그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

책 『화교 이야기』의 저자 김종호 서강대 교수는 동남아시아 화교를 남중국해 해역공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발을 디딜 수는 없지만, 남중국해를 건너는 화인들에게 뚜렷이 상상되고 있었던 중국인의 네트워크라고 묘사한다. 네트워크의 핵심 작동 기제는 화인들이 그들끼리 ‘관시(關係)’와 ‘신용(信用)’을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혈연·지연 기반 공동체 단위의 멤버십이라고 말한다.

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제적 영향력과 중국과의 정치적 연계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비중은 4%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자카르타 쇼핑몰과 레스토랑에서 마주치거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여주는 화교 사업가의 수는 훨씬 많다. 포브스 부자 순위에서 상위 100인 인도네시아 재벌은 대부분이 중국계 사업가들이다.

네덜란드는 자바에 강제 경작제도를 도입해서 커피, 사탕수수, 담배 플랜테이션(대농장)을 만들고, 중국과 인도에서 노동력을 수입한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노동이주가 급증한다. 동남아시아는 원래 다종족·다문화 사회였는데, 여기에 유럽인과 중국인과 인도인이 더해지면서 더 다채로워진다.

개인 또는 집단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주는 거주지를 재조정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만드는 행위이며, 송출국과 이주국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이주 인구는 2억8천1백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3.6%를 차지하며, 이중 노동이주는 1억6천9백만 명으로 추산한다.

용어를 살펴보면, 화교는 중국 국적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주국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체류자이다. 화인은 다른 나라 국적으로 해외에 영구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이다. 화예는 해외 거주 중국인의 자녀를 말한다.

화인 네트워크는 이민, 무역, 송금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이민을 살펴보자. 1840년~1940년 기간에 중국인 약 2천만 명이 동남아시아로 내려왔고, 이는 세관 신고자 수이고 비공식 출국자도 많았으므로 실제 이주자는 더 많았을 것이고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다고 한다. 청나라가 1893년에 해외여행 자유화를 단행하자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1890년~1930년 기간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도시에서 하층 노동자 계층을 구성했다.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계 이주민은 출신 지역에 따라 크게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각각 푸젠 남부지역(호키엔),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광둥지역(캔터니즈), 광둥 동북부 차오저우-샨터우 지역(줄여서 차오산 지역. 차오저우), 푸젠과 광둥 배후지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커지아(하카), 하이난섬 출신이다. 이들은 확실하게 서로를 구별했고, 방언도 서로 달랐으며, 문화와 쓰는 용어 역시 달랐다. 그들은 지역성에 기반한 정체성이 강했기에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벌이는 사이이기도 했다. 그들 사이에는 단지 같은 문자를 공유한다는 것과 청(淸)이라고 하는 대륙의 제국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매우 느슨한 공유의식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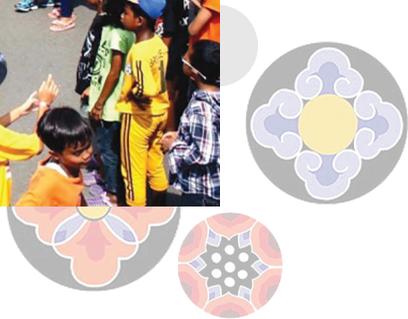
김중호 교수는 중국계 이주민들이 각 방언그룹에서 벗어나 중화민족으로서의 자각하는 계기로 20세기 초중반 신해혁명(辛亥革命)의 발생과 쑨원(孫文)의 노력 그리고 일본의 중국과 동남아시아 침략을 꼽았다.

중국계 이주민 중 무역업자(상인)와 유통업자(상인)들은 유럽인들이 세운 항구도시에서 살면서, 금, 은, 동을 통한 교역과 동남아 산물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고, 현지에서 일하는 중국인을 위한 생필품을 수입해 유통했다. 또한 지방에서는 농민과 광부 등 생산자로 일했다. 유럽인들이 현지인을 배제하고 중국인에게 일을 시켜서 중국계 이주민들은 100년 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반화교 정서가 팽배해지는 요인도 됐다.

중국계 이주민들이 동남아시아로 온 가장 큰 이유는 본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노동이민자들의 송금액이 증가하면서 한때는 중국 무역수지의 15%를 차지하기도 했다. 노동이민자들의 송금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 순환의 원천이었고, 중국 산업자본의 원천이 된다. 무엇보다 송금을 중개하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한다.

동남아시아 노동이주는 돈과 물자만이 아니라 사상, 문화, 정보 같은 무형의 요소들도 움직이게 했다. 19~20세기 사이 100년 간 2천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중국 본토 가족에게 돈과 함께 보낸 편지에는 당시 시대상이 풍부하게 담겼고, 이에 2013년에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우리가 화인공동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인도네시아에 온 한국계 이주자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교들을 살펴보면 이주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도 하고 끝까지 이질적으로 남는 이도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현지화 또는 현지사회에 대한 동화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분화할까? 한인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100년의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될까?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현지인들과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끝]





Opera  
Kreatif Korea



The  
Wedding  
Day

시집가는날

Hari  
pemikahan

15-16 May 2024 7:30PM

Teater Besar, Teater Jakarta,  
Taman Ismail Marzuki

New Seoul Opera



ARTS COUNCIL  
KOREA



Artistic Director : Hong Jiwon    Music Composition : Lim Junehee  
Contact : Mr.Pak Sonny +62 812 1098 9234 / nsopera24@gmail.com

## 스칼렛 미용실을 점령한 푸른 생명체

“별, 인간, 식물, 우주의 먼지 뿐만 아니라 벌레 등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의 피리 부는 사람의 곡에 맞추어 춤을 출 뿐이다.”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식물과 동물이 춤추는 ‘스칼렛’ 미용실.



‘반려식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으로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뜻해요. 식물을 기르고 가꾸면서 식물과 교감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며 생겨난 용어예요. 반려식물은 관상용부터 공기정화, 인테리어, 요리, 학습, 치유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제 경우에는 ‘마음 정화’예요. 식물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공기도 정화되고 눈도 정화되지만, 식물을 보면 뇌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알파파가 활성화된대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은 조금 특별해요. 길거리의 깨진 화분이나 골프장의 꽃밭에서 숨아낸 죽어가는 생명이거나 바람을 타고 날아와 베란다의 화분에 직접 뿌리를 내렸거든요. 버려진 식물을 데려다 곱게 키운 식물이 자리 잡고 그 식물에 새 잎이 돋고 꽃을 피울 때마다 부듯해요.

스칼렛 미용실에 뿌리내린 '푸른 생명체'가 어느새 제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네요. 여러분, 뿌리의 힘을 믿어보세요.



**양이 몽이 안은 전무연 실장님>>**

2023년 6월호 31 [반려동물 랜선집사] 에도 소개된 전 실장님과 양이와 몽이는 여전히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 스칼렛(Scarlett) 미용실:  
15138 Banten, Kota Tangerang,  
Kec. Cibodas, Panunggangan Bar.  
Ruko Palais, Lippo / 08128388774



##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5)

### 5. 제2차 성숙기(2017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그리고 미래

1)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과 CEPA 발효  
제2차 성숙기에는 한-인니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하면서 양국은 50년을 넘어 영원한 미래 동반자로 발돋움하는 시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60km 떨어진 대통령궁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ROK-ROI 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을 채택했다.

총 4개 분야, 27개 문단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를 명시하면서 ①전략적 협력 ②실질협력 ③인적교류 ④지역·글로벌 협력 분야별로 협력 내용을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장관급 공동위원회·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 온 데 만족감을 표하며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는 한편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면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달러

모로 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와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두 정상은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무역의 료를 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2020년 15개국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2023년 1월부터 발효하면서 양국간 경제 관계 전반에서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CEPA는 양국 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 2)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아세안 관계 4강국 수준 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7박8일 동남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의 첫 일정으로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동포 300여명과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인 23명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나의 첫 국민방문으로 인도네시아를 찾았다”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늘 강조해왔다”며 “주변 4대국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3) 조코 위도도 대통령 국민 방한: 창덕궁에서 특별한 환영식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8년 9월 10일 한국을 국민 방문하였다. 맑은 가을 날, 창덕궁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양국을 서로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창덕궁을 열어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

공식 환영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후에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자카르타 경전철 건설에 한국 컨소시엄 참여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 비자신청 절차 간소화 합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잠수함 공동생산을 비롯한 방산 협력 지속 등 양국 정상은 앞서 2017년



창덕궁 환영식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 2018.9.10 [청와대]

11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성과와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4) 윤석열-조코위 대통령 “공급망·인프라·방산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2년 7월 28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와 인프라 구축 등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방명록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적합한 파트너’라고 적었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시작하자 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인도네시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공급망, 경제안보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협력을 더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많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돕고,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전기차 관련 투자를 추진할 전망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도로, 주택과 같은 인프라 건설은 물론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나라가 공동개발한 전투기 ‘KF-21’을 포함한 방산 분야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 5) 윤석열-조코위 대통령 회담...”한국, 인도네시아 최적의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코위 대통령과 재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기업인 회의)을 맞아 마련됐다.

양국 정상은 사전 환담에서 지난 7월 말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국방·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후속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첨단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전략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디지털 교육, 스마트시티,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 경제 분야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고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 한·인니 경험 2.0(디지털 파트너십) ▲ 핵심광물 협력 ▲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 인프라 개발협력(신수도·중전철·해양교통 등)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이 앞서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공개한 다음 개최된 첫 아세안 경제인 행사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양국 관계를 고도화하는데 기여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에 크게 두 가지를 기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히로시마 G7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2023.05.21

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또다른 하나는 2019년 양국 대통령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CEPA는 2023년 1월부터 발효됐다.

앞서 2017년 11월 9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달러 규모로 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와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명문 정치가문 출신이거나 재벌가 출신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서민과 중산층들은 친근감을 느낀다. 정치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기업 규모 가구사업가 조코위는 2005년에 중부자바주 솔로시장에 출마, 36%를 득표해 힘겹게 당선된다. 부패가 만연한 행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불시 현장방문(blusukan)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시내 중심가 도로를 장악해 교통과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과 수습 차례 면담을 통해 새 유통센터로 이전시키는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조코위는 2012년에 자카르타 시장에 당선돼 특유의 발로 뛰는 지도자로서 중흥무진하면서 큰 성과를 냈다.

이어 대중적인 인기가 급상승한 조코위는 2014년에는 투쟁민주당(PDIP) 대통령 후보가 되어 명문가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와 맞붙어 대권을 거머쥘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민생을 챙기면서 높은 인기를 얻어 2019년에 프라보워 후보와 다시 격돌해 연임에 성공한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알리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공식 계정의 팔로워는 각각 4,500만명과 1,000만명으로 집권 8년차에도 대통령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으나, 친서민 정책을 통해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끝)

**제3회** 접수 기간 **06.01 - 06.30**

#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참가 자격**

- 인도네시아 거주 초등학교생 누구나 신청 가능

**공모 주제 및 형식**

- 인도네시아의 숲과 나무, 생태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
- 꿈과 희망이 담긴 인도네시아 거주 이야기 (체험수기, 동화, 동시 등)

**제출 방법**

- 산문 A4 3쪽~5쪽 / 운문 2편 이상 (맑은고딕 10p, 행간 160%)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본(hwp, doc),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작품명
- 2021mothernature@gmail.com, ikcskr@gmail.com로 동시 송부

**시상 내역**

구분	상명
대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최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우수상	한인니문화연구원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상
장려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시상식 및 문화 행사**

- 9월 초 Gedung Kesenian Jakarta 또는 Galeri Indonesia Kaya 개최 예정

**문의사항**

- 081 111 7230 / 카카오톡 jaerin202
- 2021mothernature@gmail.com

**주최**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KOREA-INDONESIA FOREST COOPERATION CENTER

**후원** **재외동포청**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전호에서 계속)

###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가족권, 후손권, 자기개발권, 교육권, 사회생활권, 법정 동등권, 근로권, 정부내 동등권, 국적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 11. 국민의 의무(Kewajiban Warganegara)

####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전체 유권자가, 자유롭게,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공정하게 실시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대통령,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어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라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준법의 의무, 근로의 권리와,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 “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 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신·구 기독교, 불교,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주, 시/군,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 개달음의 순례여행, 인도네시아 와이삭(Waisak) 축제

글: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은 육법공양(등·향·꽃·쌀·차·과일)의 축복 속에 우뚝 서 있다. 3000m가 넘는 메라피(Merapi) 화산을 배경으로 삼은 주변에는 논밭과 함께 차밭, 그리고 야자수 숲과 갖가지 향신재·과일·꽃이 지천이다. 프로고(Progo)강과 엘로(Elo)강이 만나는 풍요로운 꾸두(Kedu) 평야 위에 세워진 보로부두르 사원. 그래서 자바인은 이곳을 성스러운 땅이라고 믿는 게 아닐까?

### ‘출생·개달음·열반’ 모두 기념하는 날

인도네시아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처님의 날’로 ‘와이삭(Hari Raya Waisak)’이라고 부른다. 북방불교와 달리 남방불교에서는 △탄생 △개달음 △열반을 같은 날 기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스러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음력 4월(베사카, vaisakha)의 보름날’이다. 인도에서는 힌두력 두 번째 달 ‘베사카’의 보름날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와이삭’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음력 4월 15일이 와이삭인 셈이다. 올해는 서력으로 5월 23일이다. 이날 기념법회·불꽃축제·방생·탑돌이 등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와이삭 축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자유(광명)를 준 날’이란 뜻이 크다. 이 축제는 중부 자바의 마글랑 시, 보로부두르 사원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와이삭 명절은 1983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국경일로 선포되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고, 불교 신자가 0.73%(약 200만 명)에 불과한 인도네시아에서 부처님오신날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을 보면 ‘다양성 속의 통합’을 국가이념으로 삼는 인도네시아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6개 종교 축일 모두 국경일로 제정하고 있다.

## 와이삭 축제의 불과 성수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에는 성스러운 불과 물을 사용한다. 자바 중부 그로보간 (Grobogan)의 므라뻬(Mrapen)에는 자연 지질 현상으로 분출되는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불이 붙으면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아 ‘영원의 불’로 불린다. 므라뻬는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111.6km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다양한 나라의 불교도들은 축제 3일 전에 므라뻬에서 가져온 ‘자연 불’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7km 떨어진 문뿔란(Muntilan) 마을의 므뉘트(Mendut) 사원에 피우고 행렬에 참여한다. 각국에서 온 스님과 불교 단체, 승가(僧迦)가 교대로 자연 불을 존중하고 신성화하는 의식을 올린다. 빛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불꽃은 삶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큰 등불 점화는 보로부두르 사원 안뜰에서 이루어진다.

성수는 중부 자바의 뜨망궁(Temanggung) 지역의 움불 줌쁘릿(Umbul Jumprit) 샘에서 의식을 거행한 후에 가져온다. 움불 줌쁘릿의 제단에 경의를 표하고, 승려 대표가 진흙 주전자에 성수를 축제 3일 전에 담아와 므뉘트 사원과 보로부두르 사원에 보관한다. 성수는 평온한 삶과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움불 줌쁘릿 지역은 해발 2,100m 높이의 신도로(Sindoro)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가까이 흐르는 빠르고강도 움불 줌쁘릿 샘에서 시작된다. 이 샘은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동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움불 줌쁘릿은 다양한 종교, 특히 불교의 성지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입욕을 하면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느낄 수 있고, 흑마법을 막고 자신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진출처 위 kompas.com

아래 Arif Budi C.

므뉘트, 빠원, 보로부두르까지 도보 순례로 시작 지난해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와이삭 축제는 오전 5시 30분 므뉘트 사원의 봉축 불공과 독경으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어 와이삭 행렬을 준비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와이삭 축제 참가자들은 오전 6시 30에 므뉘트 사원을 출발해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행렬을 따라 불경을 독송하며 7km 정도 도보 순례를 한다. 므뉘트 사원, 빠원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 행렬은 보로부두르 사원 마당에서 열리는 와이삭 축제의 핵심인 ‘출생·깨달음·열반(Tri Suci Waisak)’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불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물과 불 외에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행렬에 참여한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Walubi)와 스님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차에 불교 단체의 깃발을 매달고, 진리(다르마)의 불·성수·재스민(Melati, 인도네시아 국화)과 유물인 부처상을 운반한다.

북소리와 염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뒤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불교도들이 따른다. 스님들은 여러 대의 장식된 차에 올라 길가에서 행렬을 지켜보는 불교도들과 주민들에게 성수와 흰 장미를 뿌리기도 한다.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와이삭 명절을 기념하는 불교도의 전통은 192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1945~1949)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3년에 재개됐다. 또 1973년에 시작된 보로부두르 사원의 대규모 2차 복원 사업으로 인해 한동안 문듯 사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 보로부두르 와이삭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와이삭 축제는 천 년 전 신도들이 꽃 공양을 했던 길에 만들어진 보로부두르 사원 단지내 룬비니 공원에 수천 명의 불교도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 서막을 연다. 축제가 열리는 날 경이로운 보로부두르 사원은 촛불과 꽃으로 가득 찬다. 불자들은 어둠을 쫓아내고 더 나은 삶을 기원하거나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염원으로 오색 촛불을 밝힌다. 이어서 엄숙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향을 태우는 의식은 와이삭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 제단에 아주 큰 연꽃 모형 위에 모신 부처님을 본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려하게 빛나다가 타들어 가는 촛불과 만개했다가 불품없이 시들어 가는 꽃은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의 삶’을 상징한다. 오전 8시 30분 와이삭 행렬이 보로부두르 사원에 도착하면 여러나라에서 온 승가, 스님들과 불교단체,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는 양초와 향을 피운다. 이어서 불교총회 회장·국회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환영 인사·기도·묵상을 하고, 와이삭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큰스님이 명상을 인도하는 말씀을 들려준다.

오전 10시 40분경에 징이 세 번 울리고 큰스님이 성수를 뿌리면서 불자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경전(자야 빠리따, Jaya Paritta)을 봉독하면 불자들은 존경의 뜻으로 가슴 앞에 손바닥을 모아 합장을 한다. 9분 뒤 명상이 종료될 때 징이 한 번 울린다. 이어서 34분 정도 큰스님은 와이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오전 11시 26분~오후 1시에 모든 불교도는 땅 위에 내려앉은 수미산, 신비의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의 주 제단에 모여 뿌라닥시나(Pradaksina) 의식을 올리면서 참된 자아에 대해 성찰한다.



사진출처 위 Rangga F. Pratama  
아래 Jacob

이는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행렬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의식이다. 사원을 세 바퀴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Paritta Suci)의 가르침을 소리 내어 반복하고 외우며 존경의 표시로 합장을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사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참가자는 뿌라닥시나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도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깃든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1,300년 전 세워져 오랜 세월동안 인도네시아를 굽어본 보로부두르, 보로부두르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가 연꽃 위에서 피어난다.

뿌라닥시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쉬는 동안 참여자들은 사원 단지 내 롬비니 공원에서 각 단체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축제는 이어진다. 와이삭 당일에는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灌佛)의식도 거행된다.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관불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 의식은 부처님의 공덕과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이다. 또한 이 의식은 사람들은 증오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축제기간 스님들과 불자들은 사원에 모여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성불), 열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전을 하루 종일 읽으며 사원 주변을 걷는다. 경전을 읽으면서 걷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전법(傳法)을 다녔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가 없었던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인도 대륙을 걸어 다니면서 진리를 설교했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스님들이 든든 사원에서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 의식은 부처님의 전법을 따르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이후 불교도들은 복덕을 쌓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 준비 비용과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의식(Pindapatta)을 한다. 또한 흰색 꽃, 바나나, 망고, 오렌지 야자 같은 오방색 열대과일을 불상에 공양하기도 한다. 이 의식은 모든 불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가난한 이웃에게 채식밥상을 차려주는 자선 나눔과 새장에서 새를 풀어주는 동물 방생도 함께 펼쳐진다.

여러 개의 불교 깃발이 달려있고, 곳곳에 등불이 장식된 사찰은 장엄하다. 불교도들도 집안을 등불로 꾸민 후 집 앞에 특별한 불교 깃발을 매단다. 와이삭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흰옷을 입는데, 이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 하이라이트는 등불 축제

보통 오후 4시 30분경 와이삭 참가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 내 등불 축제 행사장인 마르가(Marga) 들판에 입장한다. 행사장에는 등불 축제를 축하하는 자바 전통 타악기 가믈란(Gamelan Karawitan)이 연주된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연주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오후 5시 30분에 등불 축제 오프닝에 이어 등불 비행 시연이 펼쳐진다. 인도네시아 승가회 의장이 경전을 읽고 묵상으로 인도한다. 오후 6시 15분 승가회 의장이 신성하고 영원한 불꽃으로 중앙 제단에 메인 촛불을 밝힌 후 주요 내빈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의 점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명상에 이어 경전을 읽으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오후 7시부터 다 함께 인도네시아 라야[國歌]를 부른다.

등불 축제의 개최사에 이어 내빈들은 중앙 본부에 모여 접화를 한다. 불교도 대표(Walubi), 중부 자바 주지사, 국영 기업 회장, 관광 및 창조 경제장관이 주도하는 개최사는 엄숙하고 성대하게 열린다. 오후 7시 30분 등불 축제가 본격 시작한다. 음력 4월 15일 보름달의 정점에 불교도들은 깊은 명상(Samadhi)을 통해 바른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로 수천 개의 등불을 켜다. 보름달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에 근거해 계산을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오후 7시 30분이 절정의 순간이어서, 그때 깊은 명상 속에 2,567개의 종으로 만든 등불이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날아올라 어두운 하늘을 거룩하게 밝혔다. 팬데믹 이전의 와이삭 축제는 주변에 LED 조명을 사용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등불 축제는 일반 대중도 참석할 수 있다. 등불을 손에서 놓기 전에 불자들은 기도를 한 후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등불을 놓는다. 진리는 통하기 때문일까. 별이 되어가는 등불을 보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떠올린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갔던 부처님을 생각하면 등불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뜨겁게 타오른다. 등불 축제를 마친 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열리는 축하 행사는 대개 예술 공연과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보로부두르 사원 하늘을 뒤덮는 등불은 부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피어남이다. 이 아름다운 축제로 인해 보로부두르는 더욱 유명해졌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등불을 타고 깃가에 들리는 듯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자비로운 속삭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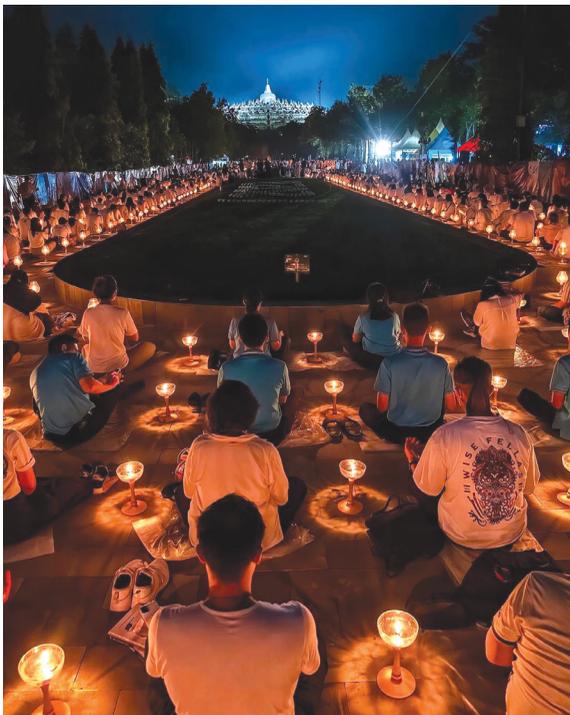
와이삭은 문화와 종교가 풍부한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깨달음의 순례 여행이다. 참가자들이 보로부두르의 웅장함과 불완전한 인간, 영성과 자유의 의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한다. 최대의 무슬림 국가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엄숙한 축제를 보고 있노라면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체감할 수 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금강(金剛)> 05·06월호 세계의 불교축제 3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글 사공경)’에서 발췌

참고문헌

- 『보로부두르』 가중수, 북코리아 (2013)
- 『보로부두르』 John Miksic 역자 김성훈, 학연문화사 (2018)



# 인도네시아 태권도 국가대표팀 한국인 감독 영입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한국정부파견  
곽영민 감독
- 세계챔피언 월드컵 MVP선수,  
한국국가대표 코치출신 장창하 감독

인도네시아 국가태권도협회 (회장: Richard Tampubolon 육군3성 장군)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2명의 한국인 감독을 영입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체육청소년부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림픽 최초 메달 획득을 목표로 4월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우수선수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을 치루고 5월1일부터 센톨에 위치한 국군스포츠단지에서 공식 합숙훈련을 실시 한다.

인도네시아 국가태권도협회 회장은 “우수한 감독 영입으로 인도네시아 태권도의 영원인 올림픽 메달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하면서 또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태권도 보급 발전을 통해 양국우호관계 증진에 더욱더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인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한국정부파견 곽영민 감독과 장창하 감독은 한국에서 선수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로 활약을 했었다. 곽영민 감독은 “인도네시아에 세계챔피언 출신 그것도 월드컵태권도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고 한국국가대표 코치 출신이 감독으로 영입된 것은 인도네시아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저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태권도계에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 장창하 감독과 같은 한국 국가대표선수출신이지만 장창하감독의 실력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국에서 선수시절을 회상해보면 장창하 감독이 경기에서 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사진) 좌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한국정부파견 곽영민 감독  
중앙 인도네시아 국가태권도협회 Richard  
Tampubolon 회장  
우 세계태권도챔피언 월드컵태권도  
MVP 장창하 감독

지금도 태권도 세계 최상위급 실력의 경력자인 장창하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영입된 것이 실감이 나질않는다. 같이 팀을 맡게 되어 설레고 저를 믿고 인도네시아로 와준 장창하 감독이 최대한 실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장창하 감독은 인도네시아 태권도선수들이 신체조건과 기초체력 등 기본기가 약한 점에 선수들의 식단이 상당히 열악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인도네시아의 스포츠 경기에서 효자종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단에 관심을 부탁했다.

인도네시아 국가태권도협회는 새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Bersatu Berprestasi!” 를 모토로 태권도 보급 발전이 크게 이루어 지도록 엘리트 태권도 육성만이 아닌 생활체육태권도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예고했다.

(기사제공 : 인도네시아 국가태권도협회)



# 2024 시사상식

## 1. 알리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로,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 항저우 알리바바 광고 유한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중 구매 방법이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 주소와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고 해외결제 카드만 준비하면 된다.

## 2. 틱톡금지법

틱톡금지법은 미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3. 소라

‘소라’ (Sora)는 간단한 텍스트만으로 고품질의 동영상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 투 비디오’ (Text to Video ·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또 기존의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기존의 동영상을 확장하거나 누락된 프레임도 채울 수 있다고 한다. ‘소라’는 일본어로 ‘하늘’을 뜻하는 단어로, 오픈AI는 해당 이름에 대해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4. 고프코어(Gorp Core)

고프코어(Gorp Core)란 아웃도어 패션을 개성 있는 일상복으로 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아웃도어룩은 점퍼에 등산화나 투박한 운동화를 신는 것이 기본 착장하는데, 고프코어는 여기에 깔끔한 정장 위에 우비를 걸치거나 스커트 위에 등산복을 걸치기도 한다.

## 5. 우주전파센터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 설치된 태양 활동 관측 하는 곳으로, 태양활동에 의한 우주전파재난을 24시간 감시하고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보해 신속하게 경보하는 기관이다.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희대와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하고 있다.

## 6. GTX-A

‘GTX-A’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영역과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GTX의 첫 번째 노선이다. 이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과 수도권 서북부(고양·파주) 지역의 강남 및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정체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7. 독성쇼크증후군(STSS)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reptococcal Toxic Shock Syndrome · STSS)’은 화농균(화농성 연쇄구균, A군 연쇄구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심부 조직이나 혈류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감염증이다. 최근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라는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 8. 매스티지(Masstige)

매스티지(Masstige)는 대중(Mass)과 명품(Prestige Product)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용어다. 이는 마이클 실버스테인과 닐 피스케가 지은 저서 ‘트레이딩 업’과 미국의 경제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대중을 위한 명품’이라는 기사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 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류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쓴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즉, 서류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필적감정이 가능하고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따라온다.

## 10. 뇌절

‘뇌절’은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집착적으로 반복해 상대를 질리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원래 일본 만화 <나루토>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의 기술 이름이지만 온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번 반복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 11. OTP

‘OTP(One Time Password)’는 일회용 패스워드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로그인할 때마다 일회성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동일한 패스워드가 반복해서 사용됨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 12.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인데, 현행 한시적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 13. 베드타운

베드타운(Bed Town)은 중심 도시에 비해 주택 지역으로 특화된 위성도시를 가리킨다. 이곳은 지역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고, 대도시로 통근하는 이들에게 있어 잠만 자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이 생겨났다.

## 14. 케이-라이스벨트

케이(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국가에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현지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아프리카 7개국(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에 다수확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쌀 생산 벨트’라고도 불린다.

## 15.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해 성립되는 계약이다. 재판상에서 화해는 소송 진행 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조서에 기재한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출처:시선뉴스]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 2024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4.26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4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5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6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7	부회장	김창근	KODECO ENERGY CO LTD	5,000	
8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9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0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1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12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13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4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5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6	자문위원장	구종을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7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18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9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0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21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22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3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4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000	
25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26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7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8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29	이사	강수한	PT. CHAEUM DESIGN	1,000	
30	이사	김경근	PT. SUKWANG INDONESIA	1,000	
31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32	이사	김영울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33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4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35	이사	남궁훈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1,000	
36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37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8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39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40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41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42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43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44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45	이사	윤수학	PT. DAE YOUNG APEX	1,000	2023
46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7	이사	이승수	PT. SINYOUNG ABADI	1,000	
48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49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50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51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52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53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54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55	이사	최태림	PT. INT.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56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57		NO NAME	-	1,000	2024.2.12

## 2024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가나다순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1	최석일	300,000	12	석웅치	300,000	23	이은진	300,000
2	NO NAME	300,000	13	안진호	300,000	24	NO NAME	500,000
3	채만용	300,000	14	정사무엘	300,000	25	이순형	600,000
4	김영경	1,000,000	15	최혜진	300,000	26	NO NAME	500,000
5	NO NAME	500,000	16	김대근	300,000	27	NO NAME	500,000
6	정순	300,000	17	김창근	300,000	28	오세명	300,000
7	김규리	300,000	18	김성구	300,000	29	이송용	300,000
8	김경희	300,000	19	김태원	300,000	30	이현용	300,000
9	사공경	300,000	20	이상일	300,000	31	김혜아	300,000
10	엄강심	300,000	21	최인실	300,000	32	차신우	300,000
11	김희순	300,000	22	홍석영	300,0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리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센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뽀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뽀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뽀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뽀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뽀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뽀뽀뽀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SMILE KIMBAB**  
Living World Alam  
Sutera, UG floor,  
Serpong Utara,  
Tangerang Selatan

081292184018

**SMILE KIMBAB**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창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Kelapa Gading MOI)	0812 5723 7627 (WA)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정육식당)	0877 7529 8482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샵)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쉘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프리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물리아 574 7777
- 상그렐라 570 7440
- 싸이드자야 570 4444
- 하야트 390 1234
- 크라운플라자 526 8833
- 술탄 573 8011
-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 굿-머니 5793 9990
-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 끌라빠가징 453 1166

-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 뚜나스신암 797 6105
-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 환전 712 8556

**반등 (지역번호 022)**

● **식당**

- 뉴캐슬식당 201 5007~8
- 명가레스토랑 200 7363
- 코리아하우스 203 1626
- 한국관 204 306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 0822 1996 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0-3332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10	족자카르타한인회 [ 0274) 497-761 ]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슬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 인도네시아 어디든! 무궁화가 함께하겠습니다.



## 무궁화 지점

스나안 / 땅그랑 / 찌까랑 / 다르마왕사 / 골라빠가딩 / 찌부부르 / 뽀독인다 / Apt.아마르타뿌라 / 발리 / 반둥 / 반둥 꼬따바루 / 바탐  
빈따로 / 솔로 / 가딩세르폰 / 즈빠라 / PIK / 플루이트 / 뉴턴1 / 끄본즈룩 / 쯤빠까마스 / 메단 / 스마랑 / 수라바야 / 족자카르타 / 찔레곤  
본띠아낙 / 빈탄 / 팔렘방 / 뽀독베낭 / BSD / 발릭파판

## 무궁화 계열사

PT.BUMI TOUR / PT.PRIMA MUDA CONSTRUCTION / PT.INDO BUMI RETAIL / PT.BUNI INDAH MAKMUR / PT.PERKASA INDAH SECURITY  
K-FOOD by. MU GUNG HWA / BON BREAD / KOT · GIL



[www.mugunghwa.co.id](http://www.mugunghwa.co.id)



@mugunghwa\_id



[mghgood@gmail.com](mailto:mghgood@gmail.com)

본사 : (021) 722-2214

가맹문의 : 0811-870-386

### 인도네시아 최대 한국식품 수입사

인도네시아 유통중인 전체 한국식품의  
50% 이상을 무궁화유통에서 수입  
인도네시아 전 지역 10,000여개  
현지 매장 한국 식품 유통

수입식품허가(ML) 등록 2,000건 이상

### 가치 창조

한국식품 신규 시장,  
인니 시장 개척과  
수출의 교두보

### 사회 공헌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및 봉사  
지역사회 구호활동

### 한식 문화 전파

무궁화 가맹점  
확대를 통해  
한국 식문화를  
인니 전역에 전파